

영화를 활용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영화 <식객> (2007)을

중심으로

심우일(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 서론

본고는 영화 <식객>을 활용한 외국어 교육을 목표로 한다. 의사소통교육의 목표는 의사소통능력의 신장에 있다.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은 언어적 요소로만 획득되지 않는다. 언어적 요소와 함께 문화적 요소도 고려되어야 한다. 의사소통능력은 다양한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 있다면 문화적 산물로서의 언어표현을 이해하고 그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외국어를 학습한다는 것은 다른 문화와의 만남이다. 왜냐하면 언어란 문법적 지식이 아니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축적된 문화적 지식과 관념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어는 한국인들의 특수한 문화적 이해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적 학습과 더불어 문화적 학습이 반드시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언어와 문화는 상보적 관계를 이루며 현대 언어교육에 있어서 문화 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 문화 교육에 대한 성과는 미비하다. 그 이유는 문화를 바라보는 저자들의 관점의 차이와 문화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문화'라는 용어를 처음 소개한 인류학의 아버지인 영국의 E. B Tyler에 의하면, 문화란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및 사회

구성으로서의 인간에 의해 획득된 모든 능력이나 습관의 복합체이다. Kluckhohn과 Kelly는 문화란 역사적으로 창조되어 내려오는 것이며, 인간 행동을 위한 가능한 잠재적 기준으로 존재하는 현재적, 합리적, 나아가서는 비합리적 생활 및 풍속이라고 정의한다. Lado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간은 사회생활을 통하여 자기 나름대로의 생활방식을 습득하고 사회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에 필요한 것들을 발전시켜왔다고 말하며, 이러한 정형화 된 삶의 양식, 즉 행동하고 말하고 느끼는 야식들일 한 사회내의 단일한 방식으로 통합되어 다른 사회의 것과는 뚜렷이 구분도리 때 바로 그것이 문화라고 하였다. 언어학자인 Samovar는 문화를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 의해 습득된 지식, 경험, 신념, 가치, 태도, 계층, 종교, 역할, 공간적 관계, 우주의 개념, 물체와 소유의 총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이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문화의 정의는 달라지기에 문화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가 아직은 미비한 실정이다. 관용적 표현을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육할 경우 문화적 이해가 없이는 완벽한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 문화의 정의가 어렵고 문화 교육의 방안이 구체화되기 힘든 것은 분명하지만 한국어교육과 더불어 문화교육이 상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실제 유경수와 홍응기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어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에서 어떤 것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는가?'라는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실제 상황의 회화를 연습하고 싶다'는 것과 '자연스러운 한국어 구사를 원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한국어 고급 단계에서 학습자는 기본적인 문법 학습을 넘어서 자연스러운 말하기 학습을 원하게 되는데 이를

학습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영화와 드라마라고 밝히고 있다. 논문의 주장처럼 영화는 한국어 고급 학습자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상황에서 회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영화가 다르고 있는 소재나 배경을 활용하여 한국 문화 교육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2. 영화 선정을 둘러싼 몇 가지 생각들

그렇다면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영화는 어떠한 조건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할까? 이 같은 물음에 관한 대답으로 아래를 참조해주기 바란다.

- ① 학습자의 학습 동기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드라마 작품이어야 한다.
- ② 한국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 현대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어야 한다.
- ③ 말하기-듣기-읽기-쓰기의 통합 교육이 가능한 작품이어야 한다.
- ④ 드라마의 주요 등장인물이 정확한 표준어를 구사해야 한다.
- ⑤ 드라마에 등장하는 어휘 수준이 한국어 학습자 대상 교육에 맞아야 한다.
- ⑥ 전문 용어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피하고 일상 회화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 ⑦ 선정적이거나 폭력성이 짙은 것은 피해야 한다.
- ⑧ 각 나라의 분쟁의 여지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한국 현대인들의 보편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위에서 제시한 영화 선정 조건들은 유경수와 홍응기의 연구를 참고하여 필자가 요약하여 작성한 것이다. 한국어 교육의 효율성을 고려하면 대체적으로 동의할 조건들이다. 하지만 한국 문화 교육을 고려한다면 몇 가지 난점이 있다. ‘한국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 현대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어야 한다.’라는 ㉠번은 한국 문화 교육을 함께 고려한다면 상당히 영화 선정의 범주를 제한하고 있다. 문화란 결국 전통적인 부분과 역사적인 측면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번의 ‘한국 현대인들의 보편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구체성이 떨어진다. 보편적인 가치관이라고 지칭하는 보편성의 기준은 무엇인지 확실하게 구분되거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영화 <식객> (2007)은 대체적으로 앞의 선정 조건들에 많은 부분 부합한다. 한국의 전통 음식이라는 소재가 학습자의 동기를 충분히 유발할 수 있고, 현대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며,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통합 교육이 가능한 작품이기도 하다. 그 외의 조건들에도 상당 부분 부합한다. 또한 영화 <식객>은 한국어 교육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전통 문화의 한 부분으로써 음식 문화를 소개할 수 있다는 점에도 매력적인 텍스트가 아닐 수 없다. 허영만 화백의 만화 <식객>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영화는 2008년 24부작 SBS드라마로 각색되어 방영된 후 에도 많은 인기를 얻었다. 영화 <식객>은 한국의 일상적인 식문화를 다채롭게 그려내고 있으며 한국 음식에 내재한 역사적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한국 문화 교육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텍스트라고 판단된다.

3. 한국어 교육 학습 목표와 문화 교육의 필요성

본고는 영화 <식객>을 통하여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통합 교육이 이루어지고 더불어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교에서 문법을 통해 학습을 하더라도 실제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말하기 능력은 부족한 편이다. 왜냐하면 언어의 문법적인 사용과 일상적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말하기 방식은 차이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습자들은 학습 현장에서와 다르게 실제 상황에서는 한국인들의 발음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영화는 실제 일상을 재현하고 등장인물들이 각각의 상황에 어울리는 말하기를 구사하므로 자연스러운 말하기를 익히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구사하는 발화 방식과 속도 그리고 음색의 차이를 학습자가 보고 들으며 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실제 상황에서도 자연스러운 말하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만 주의하여야 할 점은 학습자에게 비어, 속어, 은어, 사투리 등은 확실하게 구분해서 표준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교육이 부족하면 이후 학습자는 정확한 표현과 부정확한 표현을 섞어서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문화 교육이 병행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문장을 읽을 수 있고 단어들의 사전적 의미를 안다고 해도 문화적 의미를 모른다면 화자의 의도한 의미(intended meaning)를 거의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영순의 연구에 따르면 의사소통은 바로 화자와 청자, 필자와 독자 간에 발화된 말이나

글에서 의도된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 의미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화자가 ‘지금 한국에는 세종대왕 같은 지도자가 필요해.’라고 말을 하고, 청자가 ‘요즘 한국에 왕이 어디 있어?’라고 반응했다면 ‘세종대왕’의 의도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에 문화 교육을 포함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볼 때 영화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은 언어 교육과 함께 문화 교육이 함께 병행되도록 수업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영화를 활용한 수업 목표를 정할 때 학습자의 능력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로 하다. 그 이유는 학습자의 언어적 학습능력에 따라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수행성과 교육의 성과를 받아들이는 수용성의 범주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화를 활용한 수업의 방향과 목표는 학습자의 언어적 학습능력에 따라 조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만약 고급 수준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영화에 담겨진 문화적 의미를 토론하고 그와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에세이로 써보는 글쓰기 수업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초급 수준의 학습자를 중심으로 영화를 활용하여 수업 방안을 구성한다면 심도 있는 문화 교육이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이다. 그럴 경우에는 말하기와 듣기 중심의 언어적 교육 방안에 초점을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들을 고려하면, 영화를 활용한 문화 교육은 한국어능력시험에서 5급 이상에 해당하는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

4. 교수 학습 계획과 방안들

다음은 영화를 활용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아래 각각의 과제 활동은 최정순의 연구를 토대로 그의 제안에 따라 영화 <식객>에 맞도록 구성하였다. 현재 영화를 활용한 문화 교육 방안은 의외로 미비한 편이다. 국내 연구는 주로 어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새롭게 구상해봐야 할 것들이 많다고 생각된다. 이런 상황에서 최정순의 연구는 영화를 활용한 문화 교육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기에 이를 토대로 영화 <식객>의 교수 방안을 재구성했다.

1) 보기 전 단계

이 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수업 내용에 대해 학습자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학습자의 사전지식, 경험, 생각 및 감정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자의 관심을 자극하고 충분한 브레인스토밍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1) 발표 및 질문 활용

학습자들이 사전에 조사해온 한국의 음식 문화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발표시키고 질문과 보충설명을 통해서 학습자의 배경지식을 활성화시킨다.

◆과제 1:

▶다음 질문들을 통해 음식 문화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및 관심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보충 및 추가 설명을 할 수 있다.

-
-
-

▶혹은 학습자가 한국의 음식에 담겨진 역사적 의미에 대해 조사 발표하게 할 수 있다.

-사전에 조사해온 한국 음식 문화의 특징에 대해 간략하게 발표하십시오.

-
-

과제 1의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한국의 음식 문화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사전 지식을 보다 구체화하고 일상적인 식문화에 담겨져 있는 다양한 의미들을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연상기법의 활용

보기 전 단계에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학습자의 선지식을 활성화시키는 것인데, 이것은 주제의 핵심에 대한 대화의 형식이나 연상 작용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과제 2:

▶영화 제목 ‘식객(食客)’을 보고 연상되는 것을 적으시오.

-
-
-

(3) 사진 및 그림 자료의 활용

영화 속의 배경을 이해시키기 위해 서사의 전개 과정에서 중요한 소재로 사용되는 요소들을 뽑아서 대상의 의미를 알아본다.

◆과제 3: ▶다음에 제시된 사진들을 자세히 보고 질문에 답하시오.

사진 :



(고종)



(육개장)



(대령속수의 칼)

의미 :

과제3의 활동을 통해서 학습자는 영화 속 배경을 통해 음식에 담겨진 역사적 의미를 알 수 있다.

2)보기 단계

여기에서는 교사가 사전에 영화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을 발췌하여 편집한 세 개의 시퀀스를 학습자에게 보여준다. 학습자는 각각의 시퀀스를 보기에 앞서 다음에 제시된 해당 과제를 먼저 읽어 본다. 그리고 과제의 질문 사항을 유의하면서 시퀀스를 보고 답을 적는다.

(1) 영화에 대한 배경 정보의 제공

▶영화에 대한 안내

대한민국 최고의 음식 맛을 자랑하는 운암정의 대를 잇기 위해 제자들 중 단 한 명의 요리사를 선출하는 자리. 음식에 마음을 담은 천재 요리사 ‘성찬(김강우 분)’과 승리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야심가 ‘봉주(임원희 분)’는 후계자 자리를 놓고 대결을 펼친다. 요리대결의 과제는 황복회! 두 요리사의 실력은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맛과 모양이 뛰어난 최상급의 요리지만, 성찬의 요리를 먹은 심사위원들이 갑자기 복어 독에 중독되어 하나 둘씩 쓰러진다. 이 모습에 당황하는 성찬과 옆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봉주. 결국, 운암정의 후계자는 봉주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리고 5년후... 조선시대 최고의 요리사인 대령숙수의 칼이 발견되고, 그의 적통을 찾는 요리대회가 열리게 된다. 5년전 실수로 요리에서 손을 뗀 천재요리사 성찬은 요리대회를 취재하는 열혈VJ 진수(이하나 분)의 끊임없는 권유와 숙명적 라이벌인 봉주의 등장으로 요리 대회 참가를 결심하고, 현존하는 최고의 요리사 자리를 놓고 다시 만난 성찬과 봉주. 그리고 이 둘의 팽팽한 대결을 지켜보는 진수. 천재 요리사 성찬을 넘어 대령숙수의 적통을 차지하려는 야심가 봉주와 그의 강력한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는 성찬은 드디어 결선에서 맞서게 되는데.. 과연 현존하는 최고의 요리사는 누가 될 것인가.

1) 줄거리 소개

2) 영화의 시퀀스를 편집하여 동영상을 보여준다.

제한된 수업 시간을 고려하여 시퀀스를 구성하되 영화 속에서 대령숙수의 칼이 지니고 있는 의미, 운암정이라는 공간이 상징하는 의미를 간략히 편집하여 제시한다.

◆과제 4:

시퀀스 1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 운암정이라는 공간이 상징하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 전통을 잇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 대령숙수의 식칼은 영화 속에서 어떤 상징성을 지니는 것인가요?

학습자는 과제 5의 활동을 통해 영화의 배경과 한국의 음식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3)보기 후 단계 활동

(1)질의 응답

◆과제 5:

▷다음 질문에 대해 답하십시오.

- 영화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세요.
- 영화에서 음식 ‘육개장’과 한국의 역사의 관계를 어떻게 그리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 전통을 잇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영화를 보고 한국의 음식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면 어떻게 바뀌었나요?

(2)글쓰기

◆과제 6:

▷영화를 보고 아래 주제에 관하여 간략히 자신의 생각을 쓰세요.

-영화 <식객>에서 소개하고 있는 육개장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한국의 음식 문화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자신이 생각하는 전통의 의미에 관해 쓰고 전통을 지켜나가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3)발표 및 토론

◆과제 7:

▷앞서 과제에서 글쓰기를 한 이후에 다른 학습자들과 그 내용을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서로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토론하도록 유도한다.

-글쓰기 발표

-학습들 사이의 토론 진행

-교수자의 정리 및 토론 마무리

5. 결론

본고는 영화 <식객>을 중심으로 한국 문화 교육 방안에 관해 간략히 소개하였다.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문화 교육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문화를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문자적 의미를 알고 있다고 하여도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심도 있는 의사소통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문화라는 개념 자체는 넓고 방대하여 그것의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 그래서

문화는 교수학습의 대상으로 삼기에 어려운 난점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교수자 나름의 체계적인 분류와 학습목표에 맞게 영화 및 드라마와 같은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한다면 부분적으로나마 문화 교육에 있어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전망한다. 특히 영화를 문화 교육의 자료로 삼을 경우 제2절에서 제시한 텍스트 선정 조건에 유의하여 한다. 그 조건은 아래와 같다.

첫째 학습자의 학습 동기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드라마 작품이어야 한다. 둘째 한국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 현대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어야 한다. 셋째 말하기-듣기-읽기-쓰기의 통합 교육이 가능한 작품이어야 한다. 넷째 드라마의 주요 등장인물이 정확한 표준어를 구사해야 한다. 다섯째 드라마에 등장하는 어휘 수준이 한국어 학습자 대상 교육에 맞아야 한다. 여섯째 전문 용어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피하고 일상 회화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일곱째 선정적이거나 폭력성이 짙은 것은 피해야 한다. 여덟째 각 나라의 분쟁의 여지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아홉째 한국 현대인들의 보편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제2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 현대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한국 문화 교육을 함께 고려한다면 상당히 영화 선정의 범주를 제한하고 있다. 문화란 결국 전통적인 부분과 역사적인 측면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 현대인들의 보편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구체성이 떨어진다. 보편적인 가치관이라고 지칭하는 보편성의 기준은 무엇인지 확실하게 구분되거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화를 활용하여 언어 교육의 실시할 경우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구사하는 발화 방식과 속도 그리고 음색의 차이를 학습자가 보고 들으며 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실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말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만 주의하여야 할 점은 학습자에게 비어, 속어, 은어, 사투리 등은 확실하게 구분해서 표준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교육이 부족하면 이후 학습자는 정확한 표현과 부정확한 표현을 섞어서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문화 교육에 있어서 학습자의 능력을 고려하여 수업 방안을 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학습자의 어학 능력이 부족할 경우 문화 교육은 사실상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어능력시험 기준 5-6급 이상의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할 때 문화 교육은 그 의도한 성과를 이루기 효율적이다. 문화 교육은 단순히 영화를 보고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자신이 느끼고 생각한 바를 글로 옮기고 발표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초급 1-2급의 경우에는 말하기와 듣기를 중심으로 하는 어학 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효율적인 학습 단계라고 본다. 그러므로 영화를 한국어 교육이나 혹은 한국 문화 교육에 활용할 경우 학습 대상자의 능력에 맞추어 학습 목표와 방안을 맞추어야 한다.

또한 수업 방안은 보기 전 단계 활동에서 연상기법을 활용하여 학습자들의 주목을 끌어야 하고, 보는 단계에서는 영화와 관련한 줄거리와 배경지식을 소개함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영화의 의미를 탐색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기 후 단계에서는 질의응답과 글쓰기 시간을 배정하고 이후 작성한 글을 발표하게 함으로써 학습자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토론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야 한다.

문화 교육은 언어 교육의 부분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이다. 왜냐하면 언어란 결국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언어 교육은 문화 교육과 함께 완성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의식에 동의한다고 하여도 아직 국내에 문화 교육에 대한 연구 성과는 미비한 편이다. 문화에 대한 연구자들의 인식과 하위분류 체계가 다르고 또한 아직 문화 교수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앞으로 문화 교육에 대한 현장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좀 더 효율적인 문화 교육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